

월간 충헌

The Monthly Chung Hyeon

'83.3 월호



이달 마지막 주일은 고난주간이다. 삼월의 모든 행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고난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는 것은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각부 주일학교가 수많은 천국일군을 양육하는 사역에 계속 매진하고 있으며 성경연구원에서 개설한 각종 성경공부반과 교사양성반까지 모두 육백명을 넘어서는 숫자가 등록되었다고 한다. 공부반에 참여하는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동절기를 이용한 계절학교도 이번의 영아부 집회를 끝으로 마무리 짓게 되었다. 이렇게 무언가 좀 더 배워보려고 애를 쓰면서 느끼는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들인가 하는 사실이다. 도대체 얼마만큼 배우고 성장해야 충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을까 하는 우리의 질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 즉 무한한 성장을 도전하였다. 이같은 도전 앞에서 배우는 우리의 심정은 겸허·겸비의 모습일 수 밖에 없다.

이번에 또한 심령부흥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마음과 뜻을 모아 성전건축을 위한 건축헌금의 작정이 있었다. 비록 목표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 귀한 역사를 감당하려는 성도들의 각오와 결심은 분명하고 확고하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사는 큰데 우리의 실력은 모자라니 자연히 우리의 가슴 속에서는 겸비한 간구가 솟구쳐 오른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건축의 역사를 감당케 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에 새성전으로 이사 가서 구월 첫주에 30주년 기념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같이 간절한 중심의 기도로 성전건축의 역사에 임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는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겸비한 모습이다. 이 큰 역사 앞에서 우리는 겸비해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 사망과 실패대신 생명과 성공과 승리가 있게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해야 되겠다.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사업과 업적, 이 모든 것이 교만과 자만의 제물이 될 수 없고 우리로 하여금 겸비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좋은 재료가 되는 것이다.

많은 지식을 얻고 난 후에, 또 큰 역사를 감당하고 난 후에도 우리는 더욱 더 그의 크신 사랑에 빚진 자일 뿐이요 갚아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크신 은총에 빚진 자일 뿐임을 고백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그의 피로 속량함 받은 주님의 소유된 종일 뿐이며 그의 발아래 무릎꿇고 엎디어 수종드는 종일 뿐이기에 누가복음 17장10절 말씀같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로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라”」와 같은 충심의 고백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같이 겸비·겸허의 길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묵상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벧전 4:1)

五大目標

天國일꾼養成
北韓宣教
民族福音化
世界宣教
聖殿建築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1983년 4월 30일 창간 제11권 제3호 통권108호

1983년 3월호 차례

권 두 언/겸허와 고난.....	주 간 · 2
이달의말씀/아이성에서의 실패와 성공	김창인 · 4
□특 집/1. 현대교회의 동향	박아론 · 6
2. 평신도의 사명	이양우 · 11
□특 별 기 고/주어진 생활규범의 재확인	윤용규 · 14
□성 경 강 해/이사야서⑥	김창인 · 16
□십계명강해/제3계명.....	이종윤 · 19
□심 방 론/효과적인 심방.....	조영길 · 24
□이 달 의 시/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 「사랑의 원자탄에서」 · 15	
□찬송가 감상과 해설/저 멀리 푸른 언덕에서.....	김창근 · 23
□신 간 안 내/한국교회의 종교개혁.....	이종윤 · 18
□그 루 터 기/하나님은 정확하시다.....	편집실 · 31
□해외에서 온 독자의 편지	고영애...

선교사 · 선교지 소식	□	교회소식.....	□
교우의 동정	□	3월의 행사.....	□
편집후기.....	□		



표지해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주님의 모습을
구스타프 · 도레가
그린성화이다.

□ 이달의 말씀

아이성에서의 실패와 성공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지고 여리고성을 평지처럼 정복한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지극히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의 쓴 잔을 마셨으며 그 다음에는 어찌하여 그 성을 정복하는 승리를 거두었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1.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1) 교만입니다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지고 철옹성벽 여리고성을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정복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겸손하면서 계속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했는데 도리어 이스라엘은 은근히 교만해졌습니다.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성공은 지식이나 권세나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겸손에 있습니다. 겸손은 성공의 기초돌이고 성공의 진행방법이고 성공의 보장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교만함이 생겼습니다.

(2) 경솔입니다

사람은 교만하면 경솔해집니다. 교만하면 원수를 업수이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교만하면 말과 행동에 순서가 없이 덤빕니다. 한 정탐군이 와서 보고를 하면 의당 하나님께 여쭙어 보아야 하는데, 교만하여 하나님과 의논하는 기도가 없이 경솔하게 전쟁에 임했다가 패배의 쓴 잔을 마셨습니다.

(3) 숨은 죄가 있었읍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아간은 시날산 두루마기 한 벌과 이백 세겔짜리 은덩이와 50세겔짜리 금덩이를 보고 탐이나서 자기 장막의 땅 속에 감추었습니다.

이 아간이 범한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원인이었습니다.

2.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정복하고 승리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1) 기도하였읍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낙심하고 남을 원망하면 아주 망하고,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와 케 앞에서 땅에 엎드려 땀을 말려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요단강을 건너온 우리가 조그마한 성에서 패배를 당했사오니 우리와 후손이 어찌 되겠나이까!” 한없이 읊니다.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른다고 외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2) 죄를 정리하였읍니다

울며 기도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길이 열립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있다. 죄를 정리해라”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대표자를 모아 재비

✠ 여호수아 8장

10~23절 ✠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
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주리라』

(수 8 : 18)

를 뽑으니 유다 지파가 뽑히고, 유다지파의 족속들을 모아 제비를 뽑으니
마지막에 아간이 뽑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고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와 위로의 복을 주시지
만 고의로 범죄한 자는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아간과 그의 처자
와 가족과 장막과 무릇 그의 집에 있는 것을 모두 다 거두어 아골골짜기
에 던지고 온 이스라엘이 돌을 들어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습니다.

죄를 비단보자기에 싸놓으면 냄새가 나고, 냄새가 나면 마귀가 와서 춤
을 추고, 마귀가 춤을 추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나니 복을 받을 수 없습니
다.

(3) 총동원입니다

먼저는 삼천명만 택해 보내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리를 펴고 잠이나 잔
다든지 놀다가 승전보고를 받으면 전리품이나 나눠 가질 생각만 하다가
실패의 쓴 잔을 마셨는데 이번에는 총동원하여 출전하였습니다. 삼만명을
먼저 보내 성 뒤에 숨게 하고, 이튿날 새벽에 오천명을 또 보내 성 서편
에 매복시켰습니다. 여호수아는 본진을 이끌고 앞장섭니다.

아이성의 왕과 백성은 먼저번처럼 득의한줄 알고 이스라엘을 향해 쫓
아나옵니다. 이 때에 이스라엘은 거짓 패하여 도망합니다. 아이성의 백성
은 너무 좋아서 성문을 열어놓고 파숫군도 세우지 않은 따라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며 군호를 삼으니 그순
간 북병들이 아이성에 달려 들어가서 순식간에 점령하고 불을 지릅니다.
거짓 도망가던 이스라엘도 일제히 돌아서서 반격을 합니다. 그날에 아이
성 백성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멸하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었
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이 커진 것도 아니고 먼저 번과 똑같은데 두번째 전투에
서는 승리를 했습니다. 일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다가 되느
냐 못되느냐가 문제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느냐 못받았느냐가 문제입
니다.

예배당 건축이 아무리 큰 공사이고, 평양 신의주에 가서 예배당을 짓는
것이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를 정리하고 있는 정
성만 쏟으면 하나님의 축복하실 터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으면 상
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이여 이 때는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총동원해서 기도
할 때입니다. 선한 일에 구경꾼이 되지 말고 땅과 눈물을 쏟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살고 세계도 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으면
사는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총동원하여 선한 일에 충성합시다. 그
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개인과 가정과 자손만대에 실패를 모르는
성공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 창 인 목사
(당회장)

현대교회의 동향

박 아 론 박사

(충신학대학원교수)

I. 서론

현대 교회의 동향 혹은 현대 기독교의 동향이라는 제목 하에 자유롭게 융통성을 보이면서 말씀을 전개시켜 보면 현대 교회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두 극단을 이루고 있다. 흔히 이것을 가리켜서 에큐메니칼 교회와 보수 교회라고 한다. 에큐메니칼 교회와 보수 교회는 한국에서만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나누어져서 그 대결이 사뭇 심각하다. 현대 교회의 동향은 양극을 이루고 있는 에큐메니칼 교회와 반 에큐메니칼 교회의 동향을 알아보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한다.

II. 에큐메니칼 교회와 해방신학

먼저 에큐메니칼 교회는 1948년 암스텔담에서 세계교회협의회(W. C. C)가 창설된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에 입각하여 그 이념 설정과 목표 추진 그리고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 세계교회협의회는 신앙적인 노선이 바로 에큐메니칼 교회의 노선을 대표하고 있으며 특히 1975년에 나이로비에서 열렸던 W. C. C 세계대회에서는 세계 인민의 도탄을 지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늘날 세계적인 대 문제는 경제적인 압박 인종차별 사회불안 등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지적을 하고 가난한 자의 압박자로부터의 해방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분명히 했다. 즉 마스주의적인 해석학을 기용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에큐메니칼

교회는 W. C. C에의해서 대표되고 있는데 W. C. C의 근본적인 노선은 해방의 관점에서 복음을 해석하고 해방의 복음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데 있다. 이 해방의 복음은 인민들을 경제적이며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압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데 복음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요사이 각광을 받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방신학자들이 제창하는대로 오늘날 에큐메니칼 교회의 근본적인 태도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를 교회가 출신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결하는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W. C. C의 근본적인 태도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출신해야 할 일은 국방비를 감축하는 것, 군비의 축소, 여권신장운동 환경오염방지, 인권옹호, 복지사회건설 등이며, 이와 같은 에큐메니칼 교회의 노선을 대표하는 W. C. C의 태도 천명은 기독교를 지성적인 종교요 정치적인 종교로 변하게 하는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이 현재 실현을 보고있다는 것도 우리가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사실인 것이다.

에큐메니칼 교회가 기독교를 정치적인 종교 지성적인 종교로 지향하는데 대해서 반 에큐메니칼의 보수교회에서는 굉장히 반발하고 도전하고 있다.

III. 보수교회

에큐메니칼 교회와 대결하는 보수교회의 현황은 어떤가? 세계적인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W.C.C에 가입하지 아니한 비퇴한 교회들로서 구성된 세계적인 보수교회의 기구가 있는데 N.A.E와 I.C.C.C라는 기구가 있다. N.A.E나 I.C.C.C등은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고 또 영향력도 점차로 감소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I.C.C.C계통의 교회와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극보수, 근본주의라고 하며 이들은 고린도후서 6장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에 입각하여 성별을 주장한다. 17절에 보면「……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이 말씀에 입각해서 믿음은 불신앙과 나누어져야 되고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두움은 사귄 수가 없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는 원칙 하에서 성별 분리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보수교회 중에서 하나의 도외시킬 수 없는 중요한 흐름인데 극보수적인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않는가? 그분들은 성별을 강조하면서 설교할 때나 성경을 강론할 때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는 고린도후서 14장을 또는 시편 1편 1절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고 하는 복음 전도와 선교에 열심하기 보다는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에게 그 교회는 썩었고 타락했으니 나오라고 하는 성별인 것이다. 그래서 극보수 교회의 그와 같은 입장을 상징적으로 해학적으로 표현해 가지고 「나오라주의」라 말한 것을 들은 적도 있다.

또 한편으로 N.A.E라는 것은 National Association Evangelizem 세계복음주의자 연맹이다. 이 N.A.E가 최근에 와서는 별로 활동을 못하고 있고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오해를 받고 있다.

IV. 도덕적 다수운동과

도전받는 보수신학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특별히 보수교회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세력이 있는데 미국의 버지니아주 렐치바그시에 있는 토마스 켈레 교회 제리 포웰박사가 예표는 그들이다. 이 포웰

박사는 “아메리카어 들으라”하는 책을 1980년에 썼다. 이 책을 보면 미국은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인 것을 강조하고 아메리카는 도덕적 다수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니까 아직도 미국은 도덕적으로 건전한데 소수가 큰 물을 흐려놓는다는 것이다. 참 신앙인들이 미국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분발해서 잃어버린 도덕과 윤리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운동을 펴나가고 있다. 그 운동을 보고 도덕적 다수운동, 도덕적 다수신앙이라고 한다. 도덕적 다수의 사명을 강조하는데 현재 아메리카나 선진 기독교국이라고 자처하고 자랑하는 서유럽을 가볼 때 도덕적 부패는 한심하기 이룰데 없다. 예를 들어서 네 가정 중에 한 가정은 이혼해서 파괴되는 가정이며 사생아의 속출 미혼모의 속출 마약 동성연애 도색영화와 잡지들이 거리에 난무하고 또 근친결혼과 새디즘, 마조히즘 등등 표현하기 어려운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이 들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건전한 사명과 도덕적 다수인 미국의 보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포웰박사가 강조하고 나섰는데 많은 호응을 지금 불러 일으키고 있다. 포웰박사의 강조점은 전 세계를 향한다. 미국에서만 메시아적인 사명을 다해야 될 것이 아니며 자유세계의 맹주인 아메리카가 도덕적으로 회복되면 전 세계적으로 도덕이 회복될 것이다. 전 세계에 대한 도덕적 사명을 강조하는 도덕적 다수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이 오늘날 보수교회 안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경향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V. 보수교회의 반성

그러나 우리 보수교회에서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나 한국에서나 에큐메니칼을 반대하고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보수신앙으로 철저히 서서 이끌어 나간다고 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 빠지기 쉬운 구덩이가 옆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은 W.C.C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종교를 강조하는데 대해서 반발하고 반대하면서 우리는 복음전도와 세계선교가 사명이며 구령사업이 교회의 제일 가는 목적인다고 강조하는 것도 좋은데 자칫 사람의

은사를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사회참여라든지 경제 정치 문화 제반에 걸쳐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을 망각하기 쉽다. 보수교회는 이런 면에서 특별히 스스로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점들이 많이 있으며 잘못 하면 보수교회는 기도원 같은 교회가 되기 쉽다. 요사이 불교는 산에서 내려오는데 기독교는 세상을 떠나서 기도에만 전념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고 있다. 에베소서 4장 13,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은 보수신앙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범하기 쉬운 위험성을 지적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같이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 우왕좌왕 하면 안 된다.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 지혜는 장성하여 젖을 먹지 않고 밥을 먹고 고기를 먹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밥을 먹을 줄 모르는 유아상태의 신앙에 놓여있지 않은지 반성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지식적인 면에 대해서도 무관심할 수가 없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주위와 관심을 기울이고 살지 못할 경우가 많다. 우리는 양자를 병행해야 되며 보수교회는 신비주의로 흘러도 안 되고 너무 지적으로 흘러도 안 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중요한것은 바로 알지 못 하면 사람의 꾀술과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동하지 않으려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바로 알아야 되며, 바로 믿고 바로 실천해야 된다. 무식한 교회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현대 설교자는 무식한 설교를 하면 안 되고 유식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참 지식을 전하는 설교가 유식한 설교지, 자기 경험담이 한번 해 가지고 “믿습시다. 아멘”하면 한참 은혜 받은 것 같았는데 다 끝나고 나면 무엇을 했는지

모르며 인생의 허무마져 느끼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데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원만한 기독교요 참 보수신앙인 것이다. 특히 보수교회의 병폐 중에 지방주의, 교권주의, 황금송배, 배전사상, 권력아부 등등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이 아니고 인간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목회하는 분들, 모이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며 신학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자기 나름대로 창작해서 마이크를 대고 성령의 바람을 “후후” 불어대고 있다. 어떻게 성령의 바람이 마이크를 통해서 나올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신비주의 기독교요 사이비 기독교인 것이다.

VI. 한국교회의 아픔

또 우리 교회가 한동안 주류, 비주류의 투쟁으로 말미암아 큰 상처를 입었다. 주류, 비주류가 교리적으로 현저한 차이성이 있어야 다름만 한데 다투는 이유는 없는 것이다. 하여튼 교회가 나누어 나가고 교파가 갈라지고 교단이 많으니까 만 교회 운동의 촉진제가 되어 좋다는 낙관적인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아프실 것이다. 이것이 다 보수교회의 병폐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교리나 신앙 문제 가지고 다투는 것은 부수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다투고 있다. 결국은 보수신앙 자체를 팔아먹는 결과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 보수교회에서 경계해야 할 위험성은 너무 지적으로 흘러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을 강조하고 믿는 일을 등한시하는 경향도 없지 않은데 있다. 현대 목회는 옛날처럼 울고 불고 무릎이 닳도록 꿇어앉아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하는 목회가 아니고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지성을 지도하는 목회를 해야 된다고 한다. 개혁주의를 부르짖는 교회는 왕성하지 못하고 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부흥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하는 개혁주의는 필요없다. 그것은 개혁주의가 무엇인지 잘못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VII. 최근의 급진주의 신학

둘째로 신복음주의의 현황은 에큐메니칼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다 공격하는 입장이 신복음주의인데 요사이 신복음주의자들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새로운 명칭을 고안했는데 “프로페틱 센터”(선지자적 중앙) 즉 알기 쉽게 번역을 한다면 말씀의 중도파라고 할 수 있다. 신복음주의는 극단적인 보수도 멀리하고 동시에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것을 강조하고 사회 구원을 주장하는 에큐메니칼을 멀리하고 중용을 취하는 것이 특징이요 장기라고 하면서 계속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계의 실정인 것 같다. 신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우리나 하늘로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다른 복음은 없다. 물론 그 분들이 다른 복음을 증거한다는 뜻으로 신복음을 제창한 것은 아니지만 새 “신”자가 그 앞에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과는 다른 것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신복음주의가 무엇이나 하는데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못보고 인식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으며 그래서 한국에서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자기가 비판하고 싶은 사람을 신복음주의라고 한다. 신복음주의가 오늘날 경제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경기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에큐메니칼 교회는 너무 급진적으로 흘러서 하나님은 죽었다고 까지 하며 보수 기독교는 밤낮 집안 싸움만 하고 있으니 그것도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에큐메니칼은 믿음이 없어 가지고 교회 문단기 운동을 하고 보수교회는 교인들은 모이고 왕성한데 자꾸 싸우고 있으니 신복음주의가 이때에 분명한 길을 제시할 역사적인 모멘트가 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양쪽 구덩이를 피하면서 바른 길 중간 길을 가는 것인가.

신복음주의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성경 영감에 대해서 태도가 회피한 것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부족하여 성경에 잘못이 있고 성경의 예언 중에서 성취 안된 것이 있고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의 신앙양심에 맡길 것이라는 나약한 성경관을 가지고 있다.

둘째로는 기독교 진화론인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설화는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루 이를 사흘 지나는 것이 반드시 24시간의 하루가 아니라도 좋으며 지질학적인 한 시대를 말해도 좋다고 하며 지질학과 천문학과 현대과학과 생물학이 급속도로 발달했는데 지금 누가 그것을 믿느냐는 것이다. 지구의 연대는 적어도 5억년이라고 본다. 이런 식으로 현대 과학과 절충하고 타협해서 신복음주의는 기독교 진화론을 믿고 있다.

또 하나는 초신앙적으로 초교파적으로 교회와 협력을 하자는 것이다. 에큐메니칼과 접촉하기를 좋아하고 막시스트 혁명론자와도 손잡고 일할수 있다고 주장을 한다. 무신론자와 상종할 수 있고, 무신론자들과 더불어 주의를 할 수 있다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뜻을 밝힐 때가 많다.

VIII. 보수교회와 사회참여문제

1974년에 로잔대회에서 150국에서 복음주의 대표자들이 세계적으로 모여들었다. 로잔대회에 참석한 분들이 다 신복음주의자라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주최측은 신복음주의적인 경향이 있는 지도자들이었다. 이 대회에서는 우리는 세계선교를 하는 동시에 교회의 책임성 문제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사회적인 책임성 문제 즉 오늘날 무수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치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데 교회가 무관심할 수 있느냐 교회는 혁명가들과 손을 잡고 직접 나서서 혁명운동을 하지 못할지라도 간접적으로 후원해야 된다 하는 것을 로잔대회에서 밝혔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말은 아니나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보수가 무엇인가 말씀대로 믿는 것이 보수이다. 세계선교, 구령사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수교회가 여태까지 구령사업만 자꾸 하고 사회적 관심은 별로 없었으니 이제 사회적인 책임도 강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이 이것이라는 것이다. 해방신학은 인간과 인간과의 횡적인 관계

만 수립하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인 신앙관계는 상관하지 말자, 관심이 없다는 것이 해방신학이다. 로잔대회에서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성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다. 1980년 3월 17일 영국의 호텔스톤시에서 복음주의자 대회가 열렸는데 그 이름이 "간소한 생활연구 국제대회"이다. 85개국 복음주의자 대표들이 해방신학 제창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세계의 많은 인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굶주리고 있는데 선진유럽이나 아메리카 기독교국의 인민들의 너무 호화로운 생활을 낮추자는 것이다. 전 세계인구 중에서 3분의 2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유럽과 아메리카는 전 세계인구의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세계자원의 5분의 4를 장악하고 부를 누리고 있다.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니 기독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연구와 결단을 해야 될 순간에 이르렀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사치와 낭비를 방지하고 검약하고 간소한 생활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미국은 생활수준이 높아서 자가용한 대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각 가정마다 적어도 두 대, 세 대가 있는 것을 한 대로 줄이고 수입면에 있어서도 소득을 천 불, 천 오백 불로 낮추고 나머지는 교회에 헌금하고 가난한 자를 돕자는 것이다. 세계 인민들이 도탄에 빠져있고 방글라데쉬와 전 세계에서 기근 속에 굶어죽는 인구가 하루에 15,000명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보수교회가 여태껏 사회,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참여가 부족했고 인간과 인간과의 횡적인 관계성에 대한 강조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의 자극제요 촉진제가 되는 줄 생각된다.

IX. 결 론

결론으로 보수 기독교와 에큐메니칼 기독교 또 신티복음주의 입장을 생각하면 에큐메니칼 골리앗을 격파할 전망이 밝다.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 보수 신앙의 물매 둘 다 섰 개만 준비하면 된다. 이사야서 6장 13절 『그중에 십분의 일이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이 삼키 운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 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같이 기록한 세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로 보수 교인은 고난을 당하고 수난하나 멸절하지 않는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고 진리의 그루터기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제거할 수가 없다. 보수교회는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고귀한 신앙과 성경적인 믿음을 물려받았으니 웬 은혜이며 웬 축복인가? 아무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 우리는 그루터기인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으며 보수신앙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며 반드시 번영하고 완성될 것이다. 그루터기는 나무를 제거하고 남은 것이나 영원히 그루터기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커지는 것이다. 보수신앙을 가진 교회는 커지는 것이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보수신앙을 가진 교회다. 우리 스스로 성장하는 교회의 산 증인이나 여기서도 만족해도 안되며 『한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했고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이는 지극히 적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했다. 겨자씨 한알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날아가서 보이지 않는 미미한 존재인데도 축복하시면서 창대한 번영을 약속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루터기로서 가능성이 있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눈을 똑바로 쫓대를 향해서 나가면 크게 번창하고 심히 창대하는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을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충현교회를 진리의 등대로서 구원의 방주로서 은혜의 시온소로 위대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보수신앙으로 감당하기 바라며 그루터기 교회로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취월장할 것이다. 과거에 역사하시고 현재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갈 때에 비진리의 어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특별히 세계선교의 꿈을 가지고 가슴을 넓게 펴고 우리의 눈을 쫓대를 향하여 그루터기의 사명을 가지고 역사하실 때에 한국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이다.

〈3월 13일 오후 4시 30분, 제2남전도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행한 박 아론 박사님의 메시지들, 박사님의 허락을 받아 게재한 것임〉

평신도의 사명



이 양 우 목사

(전도위원회 교회성장분과 및 메스컴 분과 담당)

한국 기독교 복음의 전래 100주년을 일년 앞둔 오늘에 있어서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특히 평신도들의 사명을 한국적 상황에서 전개해 보면

첫째는 확고한 신앙의 정립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던 둘 다 웅덩이에 빠질 위험이 있다(마 15:14)고 경고하시면서, 먼저 믿는 자들이 말씀 안에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갈 것을 지적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올바르게 확신에 찬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의 확신과 바른 이해와 넓은 지식이 정립되고 그 말씀이 성도의 생활 밑바닥까지 전파되어 살아있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신관·성경관·구원관·교회관 등등의 신학적 지식도 섭렵해야만 마귀의 역사로 이등고 혼탁한 세상에서 바른 신앙으로 대처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 그리고 기도와 전도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바른 신앙으로 정립할 때 평신도로써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다.

둘째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3~16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리킨다.

먼저 소금의 역할을 살펴보면

(1) 맛을 내는 것이다.

마귀의 역사로 살 맛 안나는 이 세상을 살 맛나게 하는 일인데 이 맛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한 것이니 소금인 복음을 뿌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 맛나게 변화되는 것이다.

(2)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다.

공기가 없는 곳에는 불법이 성행하고 죽은 시체에 구더기 생기고 과리때 모이듯이 마귀의 역사 있는 곳에 부패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이 부패를 방지하는 복음인 것이다. 이 부활에 동참할 약속받은 성도들이야말로 살아있는 자이니 소금처럼 복음을 뿌려서 불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공의를, 미움과 시기와 악함이 있는 곳에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죄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부활을 전함으로써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니며 빛 자체가 되신 주님의 빛을 받아 되비치는 깨닫이 담긴 거울과 같음을 잊지 말고 분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항상 정결케 해야 한다. 그리고 등잔 불이 그 빛을 계속 발하려면 기름의 공급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은혜와 은사의 공급이 계속 필요함을 가리킨다.

세째는 사회에 대한 평신도의 참여에 있어서 여러가지의 술선수범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예기해 보면

(1) 정결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부정부패가 난무했던 월남은 망했다. 음란하고 방탕했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폼페이와 로마 제국도 망했다. 음란과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오늘날 한국의 사회가 호텔마다 ○○클럽을 가지고 가정과 사회를 병들게 하고 사치와 음란한 풍조가 성행하고 있다. 이것은 망국의 병이니 오늘 한국 교회의 평신도들은 그러한 부패된 곳을 복음을 들고가서 정결케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깨끗한 그릇으로 드려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귀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2) 민족에게 참된 소망을 심어 주어야 한다.

하늘에 소망이 없는 고로 땅의 것에 집착하여 술과 담배 그리고 주색잡기 등등의 죄악이 난무하는 것이며 그들의 가슴 속에 참 소망의 빛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고 범죄하는 것이다. 이 민족이 살 길은 그들의 썩은 심령과 정신을 변화 개조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나라의 교육이나 문화시설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 민족이 악마의 악한 술수에 서 벗어나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이다.

(3) 사랑의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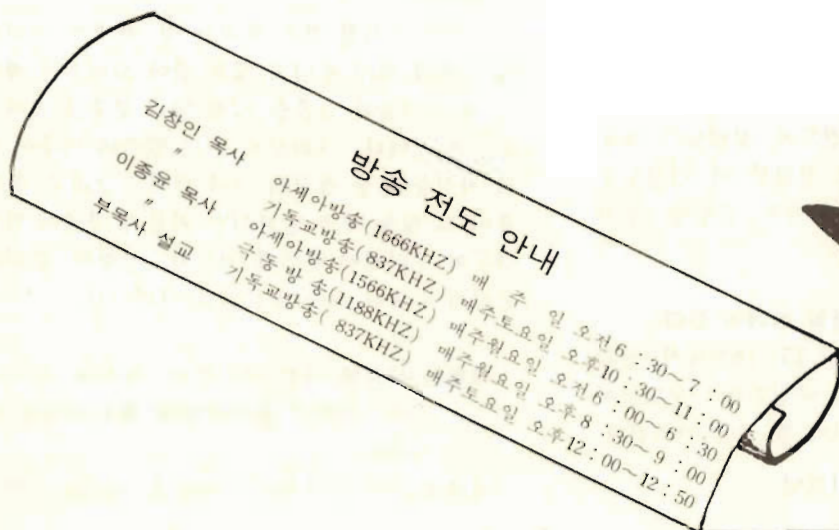
사랑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 사랑의

빛을 받아 사랑을 이 민족의 가슴 속에 심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님을 그 심정에 그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그 속에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의 피가 생동하게 된다. 성도 여러분이 이 사랑을 마음 속에 소유하지 못했다면 결코 남을 사랑 할 수 없을 것이며, 이 사랑을 그 마음 속에 소유한 사람은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데로 남을 먼저 섬기고 사랑하게 된다. 참으로 사랑의 운동은 그리스도를 가슴 속에 모시므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고로 참된 사랑의 운동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평신도의 사명은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올바른 관계로 유지시킨데서 부터 시작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이신 복음전파로 끝난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 11 : 25~26)라고 하신 물으심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에서 그리고 체험에서 시작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 그리고 복음의 전파등으로 지속되는 것이다. 주님이 구름타고 오실 때에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하며.



주어진 생활규범의 재확인

-내가 본 김창인 목사님의 생활 교훈 중에서-



윤 용 규 장로
(장년부지도부)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가변적 요소와 불가변적 요소가 있다.

불가변적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이다. 성경은 완전한 진리로 주어졌기 때문에 완전한 것에는 발전이라는 말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불변하는 본질적 요소로서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변적 요소는 자주 변하게 되는데 이것을 흔히 발전한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역사적 유물이나 사회적 풍조 등은 그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기인되고 있으나 불완전한 것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게 되면 거기에 맞도록 다시 발전하게 된다. 이 발전이란 말이 원래 불완전한 것을 전제하여 적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치, 사회, 경제, 학문, 예술 등 모두가 자꾸만 발전하여 그 시대와 부응하는 문화생활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것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일반적 생활양식에까지 너

무 지나치게 새로운 것(유행)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의식적으로 적응해 버림으로 해서 교회가 무관심할 수 없는 면도 혹 없지는 않다.

그 대표적 예로서 반응이 가장 민감하게 나타나는 것은 매년 바뀌는 유행들이다. 특히 옷의 맵시가 짧아졌다. 길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하면서 변화의 곡선을 긋는다.

이런 때 교회가 생활규범이 될 수 있는 기준(Standard)을 설정하여 교인들에게 그 적용의 융통성을 규모있게 마련해 준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생활규범은 예배모범이나 권징 조례와 같이 시행령은 될 수 없다. 교인들로 하여금 자성, 자재, 자중케 하여 교회생활에 덕을 세우게 하는 건덕 신앙인격을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범은 직접 보고 느끼는 생활교훈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받아 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당회장 목사님의 생활교훈 몇 가지를 찾아 보기로 하자.

—중간쯤에서 따라가는 것이 좋아—

목사님께서서는 교인들의 옷에 대한 생활규범으로서 “옷을 입는 목적은 몸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옷은 활동하기에 간편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규범은 건강상 또는 보호할 곳을 보호할 수 있는 옷, 일 하는데 능률적인 옷이 적합하다는 말씀인 줄 안다. “남제직들은 예배에 수종들 때 정장을 하고 여제직들은 긴 소매에 너무 화려한 옷으로 입지 말고 흰 옷이라도 깨끗하게 입고 수종들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규범은 연초에 특별 제직회 때 여름에 대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 교인들의 옷 차림은 시대적 유행을 좇아서 앞서 가지도 말고 또 너무 뒤 떨어진 것으로도 말고 항상 중간쯤에서 따라 가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생활교훈은 어떤 특유의 전형적 옷으로 규정함으로 제한받는 심리적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깊은 자아의식 자기성찰 자기평가를 가지게 함으로서 교인간의 융화를 이루게 하

고 스스로 자기 분수에 맞는 신앙인격의 지침으로 삼기에 얼마나 충분한 말씀인지 모른다. 이러한 모든 생활교훈은 우리 총현 교인들에게 이미 오래 전부터 의식화되어 몸에 밴 생활질서를 원만히 유지하고 있다.

—내가 그만 실수한거야—

이런 시대적 변천은 남자에게도 예외일 수는 없다. 70년 중반기부터 장발이라고 하는 바람이 남성들의 머리에 세차게 몰아쳤다. 이 바람도 역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거침없이 교회에까지 들어왔다. 흔히 장발족하면 젊은이의 대명사처럼 불리어 왔으나,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처음 청소년들로부터 시작될 때는 머뭇머뭇 하는 상 싶더니 어느 사이에 집사들의 머리도 길어지고 장로와 교역자의 머리도 점점 길어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흰출하고 맵시있게 깎은 머리가 이제는 고집장이처럼 보이고 고루한 인상을 받기에 이르렀을 무렵 S장로님은 적극적으로 계몽의 선구자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머리가 긴 동료장로님들을 만나면 서슴지 않고 “아무개 장로님 머리가 좀 긴데 우리들은 귀가 나오도록은 깎기로 하자”고 하는 권유를 하시면 서로 자긍하는 마음으로 받아 드리곤 하였다.

그런데 한번은 교역자 월례회 때의 일이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한 마디 합니다. 우리 교역자들 미리 좀 긴 것들 같이 우리 귀가 나오도록은 깎지어교역자들까지 깎자는 말은 아니고—” 모두 대답대신 한 바탕

웃었다. “우리는 교인들에게 신경쓰이게 하고 마음에 부담줄 필요 없지 자 내 머리 정도면 괜찮지요?”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들려 주신다. “이 머리는 이발소에서 깎은 것이 아니고 집에서 깎은거요. 요즘에 500원짜리 헤어칼(Hair cut)인가 뭔가 있지요 그걸로 깎은 건데 괜찮지요?” 모두의 시선은 목사님의 머리로 집중되었다. 그때 교역자 한 분이 “목사님을 사모님께서 깎아 드리시나요?” 하고 물었다. “아니요 내가 한 겁니다. 내 손으로 깎은지가 벌써 수년 됩니다” 하시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신다. “오늘날 우리나라 이발소에서 하고 있는 퇴폐풍조 이거 참 망할 것들을 하고 있어요. 선진국인 서구 어느 곳을 가봐도 15-20분이면 이발을 모두 마치고 이내 직장이나 일터로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백성은 그들의 생활만도 아주 못하면서 두서너 시간씩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을 이발소에 누워서 보내고 있으니 시간적으로 손해보고 지나친 친절에 마음은 병들어 가는 이 퇴폐풍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난 그 꼴들 너무나 보기 싫어서 집에서 내 손으로 깎기 시작한거요. 이제 수년이 됐는데 제법 잘 깎는가봐 아무데 가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 없으니” 모두는 너무도 교훈적인 생활에 머리를 숙이고 말았다. 그 후 적어도 교역자들과 장로들의 머리는 적정선을 넘지않는 보편적인 생활규범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번은 당회장 목사님께서 우연찮은 이상이 생겼다. 그

러니까 작년 4월달 예배시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려고 강단에 섰을 때 보는 사람마다 깜짝 놀랐다. 목사님의 오른쪽 머리 한 가운데가 움푹 패었기 때문이다. 혹시 상처를 입으신 것이 아닌가? 하고 장로들도 모두 놀라는 눈치였다. 저 정도의 부상이면 꽤 큰 상처를 입으셨겠다 걱정을 하면서 서로 물어 봤으나 아무도 그 진상을 아는 사람은 없어 다 같이 궁금증이 생겼다. 예배를 마친 후 C장로님이 다가가서 “목사님 혹시 머리에 상처라도 입으셨는지요?” 라고 여쭙니 “아니요 내가 그만 실수했오 칼질(Hair cut)을 잘못해서 이렇게 많이 잘라냈구만, 보기 흉한가봐” 하시면서 껄껄 웃으신다. 모두는 안도의 숨을 쉬면서 함께 웃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이나 생활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은 곧 우리들의 생활규범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밥알이 통곡합니다—

우리 교회의 식사에 대한 규범은 다른 것과는 달리 아주 엄격한 생활규범의 하나로 정착하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회중이 모이는 공동체인 만큼 대개 공동식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좌석은 안쪽에서부터 차례대로 앉고 또 그 순서로 배식을 한다. 식당일 경우는 열을 서서 각자 배식을 받고 질서있게 앉아서 식사를 하고 나면 자기 그릇을 가지고 가서 반납한다. 이것은 통상적 차례질서 이거니와 보다 엄격한 것은 밥이나 국을 먹다 남겨서 버려지는 사례다. 심하게는 찬을 남기는

것까지도 규제한다. 요즘 정부에서 의식개혁의 일환으로 식단체를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벌써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 취해야 한다. 많다고 생각되면 미리 덜고서 먹고 식사후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자유롭게 추가식할 수 있도록 한다. 혹이나 먹다 남겨서 버리지는 경우가 있을 경우 목사님의 꾸중은 대단하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을 앞에 놓고 감사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밥알 한 개라도 버릴수 없다”고 하시며 “이 곡식 한알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한 농부들을 생각해 보라”고 하신다. “우리가 밥을 먹고 잘 소화되어 힘을 얻어 가지고 선한 일을 할 때 이 밥알은 자기 본분 다한 것을 기뻐할 겁니다. 그러나 먹다 남겨져서 제구실 못하고 구정물통에 버려진다면 이 밥알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할 겁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의인화(擬人化) 교훈은 사물에 대한 우리의 가치의식을 더욱 깊게 심어주고 있다. L 장로님은 집사때 당한 일을 가끔 말한다. 차례대로 식탁에 앉다 보니 목사님과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그만 실수하여 밥알 하나를 상에 떨어뜨렸는데 작은 것이라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식사를 하고 있었더니 목사님께서 그것을 살며시 집어다가 잡수시더라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 교훈은 선명하고 생생한 우리들의 생활규범이 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들의 교회 생활에 제시하여 주는 귀중한 산 교훈들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내 속에 신앙이 없으면서 신앙으로 살라

는 말 그것은 거짓이고 사랑이 없으면서 사랑 가지고 살라는 말 그것은 위선이고, 구원체험 없으면서 구원체험 가지고 살라는 말 그것은 무력하다. 우리는 지금

주어진 이 산 교훈을 나의 생활 규범으로 얼마나 체계화 시키고 있는지 한번 더 재확인하도록 하자.

□ 이달의 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양춘이 간다고 애석타 말지며
염천이 온다고 꺼리지 말아라

가을달 진다고 탄식치 말지며
백설이 온다고 겁내지 말아라

꽃 떨어진다고 낙망치 말지며
슬픈 눈물에도 과념치 말아라

청춘의 행락도 자랄치 말지며
귀밀의 백발도 한탄치 말아라

순경의 찬송도 치우치지 말지며
역경의 진리를 무시치 말아라

주시고 거두시는 하나님의 경륜이니
세상의 어느 누가 막으며 피할손가

차라리 주신 진리 찾아서 배울지며
장차는 사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찬송은 主前에 희곡이 되고
회개의 눈물은 비곡이 되리니

회개의 찬송, 비곡의 눈물이 삼합되어
기독교의 생활에 진리가 되리다

〈사랑의 원자탄〉에서



김창인 목사의 이사야서 강해⑥

(사 1 : 10)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찌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찌어다(사1 : 10)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볼 때 세상적으로는 남자와 여자로 신앙적으로는 신자와 불신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셋으로 가르칩니다. 불신자 가짜신자 진짜신자—이렇게 셋으로 나누십니다. 사람 보기에는 예배당에 다니기만 하면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입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십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부분에는 가짜신자, 그 다음에는 진짜신자로 내용을 나누어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 가짜 신자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마음의 귀를 기울여 정신을 모아서 들어야 하는데, 육신의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면서 영의 귀로는 악마와 쫓겨거리며 딴 장난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

님의 책망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면을 거역합니다.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두려움으로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순종치 못하는 것이 가짜 신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의 이야기가 나오면 귀가 번쩍입니다. 예화나 하나 들어서 옛말이나 하면 정신이 드니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은 허탄한 얘기 즉 뿌리없는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음란한 말에 마음이 끌려간다는 말입니다. 더러운 죄를 범하고자 할 때에 그런 말에 마음이 끌려가고 음란한 노래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욕심을 채울만한 말이 들려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 납니다. 이런 사람의 필경은 하나님 앞에 욕을 들리고 영원히 불쌍해집니다. 사람노릇 제대로 하는 자식은 부모님의 말씀에 정신을 차려 들으나 멸망하는 자는 말을 컷전으로도 안 들립니다.

격식과 모양은 갖추고 찬미도 부르고 기도도 올리고 설교도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찬미를 부르는데 뜨거운 마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헌금을 드리되 남(사람)을 의식하는 내용없는 쭈정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말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간판은 내놓고 뒤에서 악한 일을 함께 합니다. 구제를 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고 물질에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도사리고 쓸데없이 교만해져 있고 더욱 무서운 것은 죄가 습관화 된 것입니다. 못된 버릇과 악한 행위가 버릇이 되어서 선한 일을 한다 하면서도 악을 겸하여 하는 것입니다.

①가짜 지도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10절)에서 관원이란 말은 지도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 때에 소돔에 사람이 살아있을까?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는 아브라

함 때에 이미 멸망해서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하니 '가짜 지도자들아' 하는 외침입니다. 즉 소돔의 관원들처럼 멸망을 받고야 말 지도자를 가르킵니다. 그러면 멸망을 받고야 말 가짜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 봅시다.

첫째로 약자를 괴롭히는 일을 했습니다. 나그네를 약탈하되 심지어는 천사가 들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롯의 집에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약자의 피가 손에 묻은 강포로 일을 삼았읍니다.

둘째로 소돔의 관원은 음란했습니다. 생각과 행동이 음란하고 말도 음란하여 몸은 예배당에 나와 앉았으나 마음은 여전히 음란하고 속되었읍니다.

세째로 욕심에 눈이 어두어져서 이런 운동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물질의 수지를 맞고 또 권세를 얻겠나 하는 이권운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해서 이런 행위를 합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사 엘리의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그 대표적 인물입니다.

②가짜교인

「고모라의 백성아」(10절)에서 고모라는 역시 소돔과 같이 율항불에 멸망한 성을 가리킵니다. 고모라의 백성들이란 말은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기는 하지만 마음속이 더럽고 추해서 고모라처럼 멸망받을 것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짜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첫째로 강포합니다.

못된 짓을 하고도 그저 또 해보라고 달려 붙는 악만 남았읍니다.

둘째로 반역만 남아 순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므로 회개도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남에게 해만 끼치고 하나님 앞에 무서운 형벌을 당하게 되니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2. 진짜 신자는 어떻습니까

(1) 진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때에는 네 가지가 있어야 바로 듣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양은 목자인지 샅꾼인지 분별합니다.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하나 엄마의 음성과 다른 여인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는 이단자의 말에 끌려가는 법이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신자는 하느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한 마디도 반박이 없이 믿습니다. 사람이 생기기 전에 지구에 공기를 가득차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여년 동안만 아니라 4천

년인들 농사를 안 지어도 왜 못 먹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을 분별할 줄 알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털끝만치도 의심 없이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세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두운 밤 길에 등불을 주는 사람만 있어도 고마웁고 먼 여행길을 갈 때에 같이 동행만 해 주어도 고마운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가르쳐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의 고마운 줄 모르면 길을 잃어 버리고 결국 짐승의 밥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감사함이 없는 신자는 탈선한 신자입니다.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 들이는 자는 거역하는 법이 없으며 순종함이 있을 뿐입니다.

네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재정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전부 검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망원경과 같아서 나 자신을 들여다 보면 지극히 적은 죄까지라도 다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토하면,

① 회개가 나옵니다.

② 선을 행할 결심이 마음에 생깁니다.

③ 선을 행하되 성경의 방법대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지혜와 실력과 방법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

숨하는 선을 행하는 방법이란 어떤 것입니까? 다음 네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목적이 좋아야 합니다.

이 목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하는 바른 목적입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그것이 계속되지 못하고 퇴색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책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외함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또 희생을 해야 합니다. 성공은 땀 흘리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땀 흘림이 없이 얻은 것은 사람을 천박하게 만듭니다.

네째 그리고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신앙양심대로 살때 땅의 것은 다 잃어 버리는 것 같아도 땅의 좋은 것을 얻는 비결입니다. 땅의 것을 잃어 버릴 때 죄를 깨끗이 다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며 죄 없는 맑은 그릇에 땅 위의 좋은 것이 언제와서 가득할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손해 같으나 그 과정을 거쳐간 다음에는 땅 위에서 가장 잘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2) 진짜 신자는 형식과 내용이 일치합니다

잘 믿는 사람은 그저 내용만 충실하고 겉은 아무래도 됩니까? 아닙니다. 나무 한 그루도 살려면 속에 진액이 있고 겉에 표피(껍데기)가 있는 법입니다. 벼에서 껍질인 겨가 없이는 알맹이인 쌀이 생길 수 없습니다. 진실한 신자는 속 마음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겉도 단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에 철저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도 결코 늦지않는 확실한 사람이라 그런 사람입니다.

꿀맛있습니다.

참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되 몸과 마음과 뜻과 생각을 모두어 감사함으로 받되 털끝 만치도 의심없이 믿으면서 말과 행실에 있어서도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며 항상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신간안내

제2차 종교개혁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외침이 도처에서 들려온다. 제단에서 사제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갔던 16세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20세기 기독교회가 젊어진 가장 큰 과제임에 틀림없다.

소위 성장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생겨진 허다한 아픔을 아픔으로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있다고 본다.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가 성숙한 교회로서 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비판할 줄 알아야 할 것이며 안팎으로 들려오는 비판의 소리에 외면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될 것이다. (중략)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겸손하게 제시해 보

한국교회의 종교개혁

◎김명혁·손봉호·홍정길·
전호진·육한홍·이종윤공저

고자 하여 이 강연회를 개최한 것이다 라고 편집자 이 종윤 박사가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책은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문제점과 가야 할 방향을 각 분야별로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김명혁목사(강변교회담임·합동신학원교수)는 「종교개혁 그 때와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손봉호박사(영동제일교회 설교자·아세아연합신학원강사)는 「한국교회정치와 그 문제점」, 홍정길목사(남서울교회담임·합동신학원강사)는 「바람직한 한국교회의 설교」, 전호진목사(의료선교회담임·아세아연합신학원교수)는 「한국교회 신학교육의 문제점과 제언」, 육한홍목사(사랑교회담임·합

동신학원강사)는 「한국교회 부흥회 무엇이 문제인가」, 이종윤목사(할렐루야교회담임·아세아연합신학원교수)는 「한국교회 성장과 그 문제점」 등의 주제로 강연한 것을 편집한 책이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한국교회가 젊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한국교회의 숫적 성장의 경의로움 때문만이 아니고 이는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말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자타가 공인하는 필연적 사실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막중한 시대적 사명을 가슴에 안고 있는 한국교회에 이러한 책이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며, 누구나 한번씩은 읽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며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초국판·80미색모조·144면·1800원·점음출판사

십 계 명

〈출 20 : 1-17〉



이 종윤 목사 (아세아연합신학원교수)

(제3계명)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과학의 신을 찾아 다니고 권력의 신을 찾아 다니고 또 희락과 동시에 육체적 쾌락을 위해 비너스의 신을 찾되, 마치 그것들을 신인양 자기들의 생애와 자기 전부를 바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도 무신론자가 없다고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제1계명과 2계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제3계명의 말씀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하신 이 말씀의 내용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성모독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성도로써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망령」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샤브”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성호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요, 둘째는 하나님으로 거짓되이 맹세하지를 말아라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모든 만물과 인간의 찬양과 예배를 영원히 받으셔야 할 우리 하나님께, 인간들이 예배드려야 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를 공경하는 방법을 보여준 말씀이 바로 이 3계명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제3계명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 말씀의 뜻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은 “빈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중에 또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섬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고 하며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 아니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입으로는 말하고 기도하면서도 생활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으며 일이 잘 될 때에는 재수가 좋아서 잘 되었고 기술이 좋아서 혹은 운이 좋아서 혹은 나로 하여금 머리가 좋은 사람이 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던 때가 우리 생활 가운데 얼마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면 자기의 힘으로 해

결해 보려고 동서남북 사방을 뛰어다니며 우리의 노력과 방법과 수단만을 동원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경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편리와 유익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같은 행동은 자기자신을 속이는 행동이며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속이는 행동이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와 같은 행동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외식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신약성경에 나타난 이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악한 것은 선을 가장한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양의 가죽을 쓴 이리가 곧 외식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노력과 이권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가식된 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훌륭한 신자인 것처럼 보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을 하고 희생을 하라고 할 때에는 손끝 하나 움직이기를 싫어하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선을 가장하고 실제로는 악을 행하는 자가 될터이니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자신의 중요성과 자기의 의를 과장한 것을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의 티를 보면서 자기 눈의 대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며 자기 중심적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사람의 심판자가 되어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남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세째로 자기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을 가장 잘 도왔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그런 행동을 통하여 영광을 얻고자 하는 일들을 성경은 외식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같은 사람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서 마치 자기의 것으로 남을 도와준 것처럼 생각했으니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찬탈한 자요 도적질한 자가 될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의 두번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웃과의 교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예레미야 5장 2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와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과의 사귄에서 진실성이 무너지지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과의 교제에서 진실이 무너지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었습니까? 그런데도 신명기 10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맹세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로마서 1장 9절이나 고린도후서 1장 23절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 가운데는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기의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장면이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땅 위에 오시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주마」 약속하신 맹세도 있었으며 마지막 날에는 심판하시겠다는 약속과 서약도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셨거늘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의 뜻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글자대로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맹세는 도무지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지키지 못할 맹세는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지니 너희 맹세는 모두가 거짓 맹세요 잘못된 서약을 하고 있으니 그런 맹세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의 율레인 “미쉬나”라고 하는 책을 보면 사람이 맹세한 것에 매이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령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하면(by Jerusalem) 그 맹세에는 잡히지 않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맹세하면(toward Jerusalem) 그 맹세에 잡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맹세를 하되 맹세에 잡히는 방법과 잡히지 않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고로 맹세에 잡히지 않는 방법대로 하곤 하므로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그런 맹세하지 말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받을 때 목사님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결혼식할 때 목사님이 주례하는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장로가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어떤 직분을 받을 때도 서약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했든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했든지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얼마나 지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그 서약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도 진실성의 결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을 때에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선교사를 보낼 때에 기도해 주고 기도하기로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놓고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다면 선교사를 위하여 헌금을 하지 못 했다면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되었으니 그 약속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떨시한 것이 되었으니 이것이 곧 제 3제명의 가르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곧 엄위하신 심판자는 그날에 선악간에 판단하시겠거늘 진실을 허무르려고 남을 이용하거나 거짓된 맹세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못한 자식이 부모의 욕이 되듯이 진실하지 못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충현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여러분의 얼굴과 움직임

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되어 버린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러므로 제 3제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진실하게 해야 한다는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세째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습관적인 규례에 매인 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판단하는 가운데 그 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중히 여기고 높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방법은 그 나라 일반 대중이 하고있는 욕을 연구해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이고로 그들의 욕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이 내포된 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욕 속에 무슨 말이 제일 많습니까? 부모에 대한 욕이 많습니다. 개자식이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합니다. 부모를 향하여 욕을 해 버립니다. 이는 동양 사람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높였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일상생활에서 함부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왜? 한국에 기독교 문화가 발생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욕지거리 속에 우리의 한탄하는 말 속에 함부로 나옵니다.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오면 “맙소사 하나님” 비가 안 와도 “하나님 맙소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중세기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날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습니까? 그들은 예배시간에 성도들이 이빨을 내놓고 웃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를 예배당에서 추방시키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함부로 웃느냐고 경건을 상실했다고 예배당에서 쫓아내는 일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하는 심정을 다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때 기록하신 하나님 앞

에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가장 정성껏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외모를 말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이 주중에는 넥타이 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주일날이 되면 명절과 같습니다. 남자는 정장을 하고 여자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에 모자를 다 쓰고 성경책을 끼고 아이들의 손을 붙들고 예배당에 가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이 나라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족하구나 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 볼 때에는 외식이고 우스운 것 같지만 그것은 정성과 힘과 모든 것을 다바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기 원하는 심정을 그렇게 습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바른 방법이 아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한 번만 도와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가 곧 신성모독죄입니다. 어떤 청년이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면서 남의 답안지를 건넬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감독관이 보지 못하게 해 달라고 했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기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그 범죄를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요. 그것이 하나님 곧 앞에 무서운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목적 자기 중심적 생활태도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히 여기는 태도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성찬예식을 『세크라멘트』라고 합니다. 이 말은 라틴어로 「세크라멘툼」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군인이 장군이나 황제 앞에서 자기의 충성을 서약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찬떡을 받고 세례를 받을 때에 서약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주님께 충성하겠다고 서약을 하

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만의 하나라도 우리가 깨어버렸다면 우리는 제 3계명을 범한 무서운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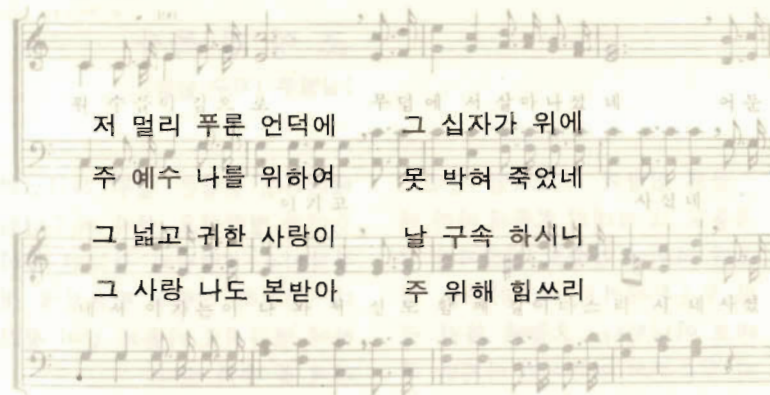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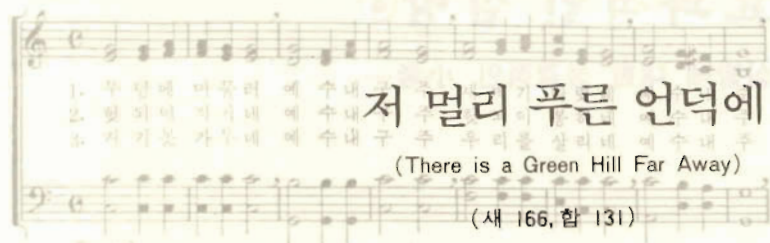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 3계명의 뜻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그를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게 될 것이니 그는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나 심지어 함부로 뱉어버리는 약속에서도 하나님과 그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서 무감각해져 버린 상태가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양심을 예민하게 만들고 과거에 범한 죄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를 참회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남을 저주하는 이는 하나님을 자기의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의 두번째 결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는 태도이며 하나님이 나 개인을 위해서 존재해 있는 피조물로 오해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함부로 남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책임이 없는 맹세와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갖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 찬송가 감상과 해설



김 창 근 목사
(예배위원장)

십자가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나 방화범 반역죄를 지은 사형수들이 받는 형틀이다. 옷을 벗겨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높은 언덕에 양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으면 진액이 다 하여서 죽는 무서운 형틀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 이것은 세상 죄를 담당하신 의의 십자가요 구원의 십자가이다. 내가 당해야 할 죄의 심판과 고난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이다. 이 십자가는 죄를 짓고 죄값으로 십자가형을 받는 좌우 양편의 두 강도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십자가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어린양의 흠 없는 제사요 그 능력은 멸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 하는 위대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 십자가이다.

그 홀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천국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3절)

우리가 당할 죄의 값 지옥의 고통을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바꿔 주신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오는 고난과 고통을 저 멀리 푸른 언덕에 날 위해 고난당 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사의 눈물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이 찬송의 작시자 켄실 프랜시스 험프리즈 알렉산더(Ceil Francis Humphreys Alexander)는 1823년 아일랜드 타이론군(Tyrone Co)에서 태어나 72세 때에 아일랜드 런던데리에서 세상을 떠났다. 9세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한 그녀는 25세 때 「어린이를 위한 찬송가」를 출판하였고, 윌리엄 알렉산더 목사와 결혼한 후에도 계속 주일학교에 나아가 어린이를 지도하면서 400여편의 찬송시를 썼다. 그리스도의 죽음(고난)을 소개한 「저 멀리 푸른 언덕에」는 그의 장례식 때와 그의 남편 장례식 때에도 이 시에 조지 스테빈스가 곡을 붙인 이 찬송가가 불리워 졌다.

효과적인 심방④

—심방에 대한 성경적인 小考—



조영길 목사

(심방부 1지구 담당)

III. 심방의 필요성과 그 목적 :

1. 심방의 필요성에 대하여 :

현대인들은 그 생활이 분주하고 복잡할 뿐만아니라 핵가족 제도와 인구 팽창의 바람을 타고 주거 환경도 대형화된 집단 아파트와 연립주택 형태로 변하여 왔다. 그래서 이웃을 모르고 사는 단절사회와 개인주의가 되었다.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대면하여 대화하기 보다는 전화기나 바깥을 내다보는 좁은 구멍을 통하여 한 두마디의 말만하고, 사람을 대하기 보다는 TV나 기계나 컴퓨터와 마주앉는 시간이 더욱 많아졌다. 하여간 바쁜 세상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노약자나 미취학 어린이들에게는 다소 시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이외에는 모두들 시간에 쫓기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현대 교회에는 어딘지 모르게 목회자의 편에서도 교인들 편에서도 심방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물론 심방의 구체적인 방법도 적용도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소간 바뀌어 갈수도 있겠지만 심방 무용론에까지 이르러서는 절대로 아니된다. 오늘에 와서 극히 일부분의 여론이긴 하지만 목회자나 신자들이 은근히 심방 무용론을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하고, 심방이란 문제를 목회적 차원에서 생각하여야만 한다. 지난번 호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양무리들을 심방하는 일은 목회자로서의 본분이다.

삼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당신의 자녀들을 심방케하신다. 목회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권면하시는 일을 심방으로 수행하여야만 한다(고후 5: 20). 신자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며 가르치고 축복하여 인도하는 것은 목회자들의 본업이다(고후 6: 1, 딤후 4: 13, 마 28: 20).

심방의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크게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심방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이요 성자 예수님의 부탁이요 성령님의 권고인 것이다. 목회적 심방의 필요성에 대하여 몇가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가 있다.

1) 양무리들의 사정을 파악할 수가 있다

교역자가 교인들의 사정을 잘 알아야한다. 그래야 그 사정에 맞는 설교와 교육이 나올 수가 있다. 일주일의 한 두번 교회에서 만나는 것으로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기란 극히 어렵다고 본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라"(요 10: 14) 고 하셨다.

여기에서 선한 목자는 반드시 자기 양떼들을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안다는 말씀은 지식적으로 혹은 피상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다. 양 한마리 한마리의 형편과 사정을 바로 안다는 뜻이다.

교인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서 어찌 바른 교회가

가 가능하며 선한 목자가 될수가 있겠는가?

牧會者가 교인의 가정을 심방하여 대화하고 교인들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을 직접 관찰하여 파악하므로써 그 교인들의 여러 가지 사정과 문제들을 정확하게 알수가 있는 것이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고 본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로마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설립한 빌립보교회를 심방할 수가 없게되자 자신을 대신하여 디모테를 심방케하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사정을 알고파 한 것을 볼 수가 있다. (빌 2: 19~20)

하여간 심방은 양떼들의 사정을 잘 아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물론 다른 방법도 있을 테지만……).

2) 많은 설교자료와 기도제목을 얻을 수가 있다

신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봄으로써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며 소원하는 것을 알게되며 그들의 신앙상태를 관찰할 수가 있으므로 더욱 적합하고 실제적인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받게된다. 심방하지 않고 교인들의 사정을 알지 못하면 전연 다른 방향으로 설교하게 되어 보다 더 큰 은혜를 끼칠 수가 없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가정을 심방하므로써 각각의 문제들을 보고 알게 되므로 더욱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더욱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된다. 교인들의 사정을 잘 모르고서는 구체적으로 교인들을 위하여 자애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고 본다. 물론 이같은 문제는 직접 심

방이 불가능할 때는 전화나 서신이나 상담이나(교인이 목사를 찾아오는 경우) 대리심방자로 하여금 보고케 하므로써 교인들의 사정을 파악할 수가 있다고 본다. 오늘과 같은 대도시의 대 교회들로서는 담임 교역자 한 사람이나 부교역자 한 두사람만 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다. 많은 부교역자들을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지역을 분담케 하여 심방케하고 교인들의 전체적인 사정을 파악할 수 밖에는 없는 일이다. 하여간 심방은 목회상 설교와 기도에 큰 도움을 주며 목자와 양떼들 간에 유기적인 관계와 일체감을 주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3) 불신 식구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내는데 큰 도움을 준다

목회자가 자기 교인들의 가정을 심방하여 보면 여러가지 면에서 그 교인을 알게된다. 즉 개인의 신앙생활과 가정 생활의 형편도 알 수가 있고 사회적인 지위나 지식 정도도 알 수가 있고 경제사정이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의 최근 형편까지도 알 수가 있다. 가족 식구들 중에서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알 수가 있다. 이같은 이들은 부모일 수도, 자녀일 수도, 동거인일 수도 있겠다. 이들에게 잘 권고하여 교회로 나오게 할 수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다고 본다. 사실 교인들의 가정을 심방하여 보면 그들의 형편이나 부모 혹은 자녀중에서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된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권하여 교회로 인도하

여야겠지만, 특별히 교역자가 그 가정을 심방하고 그들을 대면하여 잘 권하면 대체적으로 그들은 순종하게 된다.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전도하여야겠지만, 가정의 복음화도 매우 중요하다.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화되어 인가귀도 하면 그 이상 가정의 축복과 행복은 없다고 본다. 적은 분량의 누룩이 많은 가루반죽에 들어가서 그 가루반죽을 전부 부풀게 하는 것과 같이(마 13: 33)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은 믿지 않는 식구들의 마음도 마침내는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다. 베드로사도와 바울사도의 경우를 보라 그들의 전도 전략도 그 어느 가정이던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가정이면 결국 그 가정을 복음화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된다. 가이사라의 고넬료 가정에 간 베드로는 결국 고넬료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까지라도(행 10: 24) 결국 다 믿게하여 복음화하였다(행 10: 44~48). 뿐만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빌립보성에 가서 루디아라고 하는 어느 여인의 집을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여 온 가정을 복음화하였고(행 16: 15) 빌립보의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집에서도 온 가족을 복음화함으로써(행 16: 33~34) 빌립보성에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심방은 교인들의 가정복음화 작업에 큰 효과를 준다.

4) 목자와 양 사이의 진지한 교제를 가지게 한다

목자는 양을 즐기 많은 푸른초장으로 인도하여 풀을 배불리 먹게 할뿐 아니라 그들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물을 마시게 할 뿐 아니라(시 23: 2) 우리로 인도하여 들이고 편히 쉬도록 하며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지켜야만 한다(요 10: 9~10) 그리고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아야만 한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면 양은 따라온다고 하였다(요 10: 3~5).

이 얼마나 아름답고 친숙한 관계이며 사이인가? 그렇다.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는 이와 같아야 한다. 참된 교제와 격이 없는 고통이 있어야만 한다. 교역자는 교인을 진정으로 사랑하여야 하며 교인은 교역자를 신뢰하고 따라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순수한 교제와 고통이 항상 유지되어야만 한다. 이같은 교제와 교통은 일 주일의 한 두번의 교회에서의 예배시간을 통한 대면과 가벼운 목례와 손을 한번 잡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본다. 조용한 시간을 정하여 교인들을 개인적으로 찾아 사정과 애로를 직접 보고 들으면서 위로하고 축복하며 붙잡아 주는 데서 참된 목자와 양 사이의 관계를 밀도있게 유지할 수가 있다고 본다. 심방을 하지 않으면 양떼들의 걸 모습만을 알지 그들의 속은 알 수가 없다. 분주한 세상, 단절된 사회일수록이 참된 대화와 교제는 필요한 것이다. 만나서 서로가 대화하며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사랑할 때에 교회에서 일어날 문제가 없다고 본다. 우리의 원수 사탄이 틈을 타는 기회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하여간 양들을 바로 알지 못하고

서 어찌 바른 목회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이상과 같이 심방의 필요성에 대하여 대략 네가지로 살펴 보았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성경 연구와 공부) 권하는 것과(심방하는 일) 가르치는 것에(교육하는 일) 착념하라!”(딤후 4: 13)

2. 심방의 목적에 대하여 :

심방에 대한 목적은 여러 사람들의 관점과 견해에 따라 이렇게 혹은 저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본다. 사람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결국 그 중심은 같다고 본다.

심방의 목적에 대한 몇가지 견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심방은 하나님의 일로 양 무리를 돌보기 위한 방편이다(잠 27: 23).

(2) 심방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나누기 위한 방편이다(롬 12: 15).

(3) 심방은 천국 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생활의 규범을 교육하는 기회를 만드는 방편이다(벧전 4: 11~13).

(목회자 핸드북 1977, 예수교 문서선교회, 20페이지)

또 다른 견해 :

(1) 심방은 교우들의 사정을 알아서 주님의 양을 잘 먹이기 위함이다(요한 21: 15) :

(2) 성도들의 영적 도움을 위함이다.

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돌봐주기 위하여(행 7: 23)

② 약한 교우와 환난 중에 있

는 교우들을 돌봐주기 위하여(딤후 25: 36 약 1: 27)

③ 환난이나 시험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하여(행 11: 23 14: 22)

(3) 교우들의 인력개발과 동행성을 위함이다.

(4) 불신 가족에게 전도할 기회를 얻기 위함이다.

(5) 교우들의 상호 협조와 친교를 위함이다(1982년도 영락교회 수첩 참고).

또 다른 견해 :

(1) 심방은 신자들의 믿음을 굳게하고 위로하여 여러 환난 중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이다(살전 3: 2~3).

(2) 심방은 신자들을 권면하여 근신케하고 교훈에 부패치 않고 경건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딤후 2: 6~7).

(3) 심방은 신자들로 하여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교제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빌 1: 27, 4: 2).

(4) 심방은 신자들로 하여금 믿음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하기 위함이다(고전 15: 58).

(5) 심방은 신자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데 있는 것이다(엡 4: 12).

(이같은 목적은 대체로 바울 서신에 나타난 바울의 심방관 내지는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상과 같은 심방의 목적에 대한 견해는 다 옳은 것이고 진리라고 믿는다. 그러하지만 저는

구약성경에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에서 심방의 목적을 찾고 싶다. 그것도 특별히 에스겔 34장에서 말이다. 왜냐하면, 에스겔 34장은 목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목자들이 있고 양 무리들이 있고 목자들의 임무와 사명이 있으며 양무리와 목자들의 관계도 있다. 목자란 말씀이 15번 양이란 말씀이 28번이나 나왔다. 그래서 참 목자상을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심방의 목적도 찾아볼 수가 있다고 본다. 대체로 다섯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다.

1) 양떼들의 안전 위하여 지키며 보호하는 것이다(15)

“내 양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이 말씀은 양떼들의 안전한 평안을 위하여 보호하라는 말씀이다. 양들이(신자들) 있는 곳에는 이리들이(사단의 역사) 있는 법이다. 이리들은 틈만 있으면 양을 해하고 물고 가려고 한다(마 10:16, 뱀전 5:8).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심방하여 잘 지키고 돌아보아 악한 자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줌으로써 양떼들이 평안하고 안전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심방하여 돌보며 지키지 아니하면 양은 본래 연약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에게 쫓기며 흩어지고 결국 악한 짐승들의 밥이 되고말다(5~6).

2)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을 찾는 것이다(16)

부지런히 양떼들을 심방하여 항상 지키지 아니하면 양떼들은

생리적으로 길을 잃어버리고 흩어지고 유리방황하게 된다(눅 15:3~7, 뱀전 2:25). 양이란 본래부터 같은 양떼들에게서부터 500m 정도만 따로 떨어져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서 길을 잃어버리고 만다고한다. 그러므로 흩어진 양을 심방하여 다시 찾고 유리 방황하는 양을 찾아 인도하여야 한다(12~13). 심방하여 보면 양떼들 중에는 여러가지 시험과 고난으로 인하여 방황하며 험길로 가는 양들이 없지 않다. 이 같은 양들을 잘 인도하며 다시돌아키며 찾아야 한다. 요사이는 더우기 많은 이단자들이 나타나서 자꾸만 양들을 미혹하여 노략하기 때문에 목자들이 잠시라도 방관해서는 아니된다.

3) 양들을 초장과 우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16중)

양들의 초장과 우리는 어딘가? 그곳은 다름아닌 교회인 것이다. 양떼들을 하나님의 집 교회로 잘 인도하여 양들이 주일을 성수토록 하여 살지고 juicy 풍성한 풀(하나님의 말씀)을 따먹고 자나도록 심방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풀을 얻으리라”(요 10:9) 양떼들은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와 편히 쉴만한 우리가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 안전하고 빠르게 자라난다(13~14).

4) 삼하고 연약한 양들을 싸매어 주는데 있다(16중하)

신자들이 마음이 상하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슬픈 일이나 근심

된 일로 인하여 괴로워 할 때에 목자는 심방하여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상처를 싸매주며 치료하여 주어야 한다. 악한 자를 강하게 붙잡아 주고 병든 자는 고쳐주며 상한 자는 싸매주지 아니하면 그 양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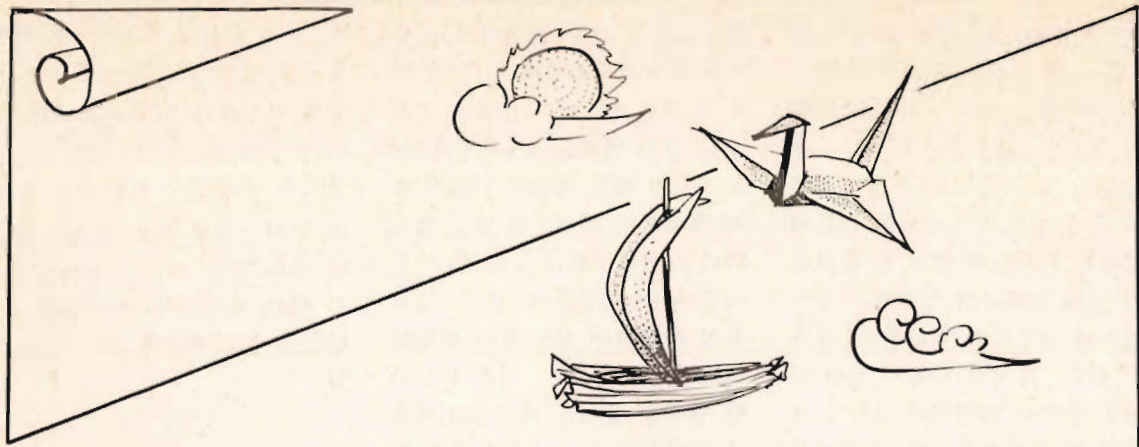
5) 살찌고 튼튼한 성숙한 양들이 되게 하는데 있다(16하)

양들은 자라나고 그것도 살찌고 튼튼하게 성장하여야 한다. 그 표준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이르러야 한다(엡 4:13). 그래야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양은 살찌고 튼튼하게 자라나야 많은 새끼 양을 낳게 되고 많은 털과 젖을 내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힘있게 봉사하며 헌신할 수가 있다. 껍싹년울 믿어도 새끼양을 낳지 못하고 털도 젖도 내지 않는다면 그 양은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된 점상적으로 자라나지 못한 양이다.

심방은 바로 이와같은 양들을 잘 돌보아 붙잡아 줌으로서 살찌고 튼튼한 성숙한 양으로 자라도록 하는 일의 한 분야인 것이다.





◇ 해외에서 온 독자의 편지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충현교회의 번영과 발전을 기도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김 창인 목사님의 설교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눈에 뚜렷이 살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충현교회에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은 서울 미아동에 사는 저의 남동생과 그의 부인의 권유였습니다. 1981년말 경에 서울 동생댁에 다니러 갔을 때 동생의 부인과 함께 예배에 참석해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서울에 살 때 집 근처의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일본으로 왔으나 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기적적으로 살아서 지금은 직장생활에도 건강히 충실히 일하고 있음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1982년 11월 추수감사절에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김 창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동생에게 "월간충현" 10월호와 11월호를 받아두고 돌아왔습니다.

이곳 일본은 한번 다녀가신 분께서는 너무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성전은 찾아보기 드문 곳으로 사탄의 역사가 심한 곳입니다. 일하며 성경읽으며 진차 속에서나 버스 속에서나 그리스도에 관한 시적을 많이 읽고 있지만 머리에 남는 것은 이상하리만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위지지 않고 뇌리에 남아있는 말씀은

79년 월간충현 9월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시18:1) 특히 감사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은혜를 받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여인으로서 마지막 행복한 순간마저도 감사했더니 지금은 몸이 건강해져서 깡마른 몸에 살이 찌 염려할 정도로 감사한 생활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운 목사님의 「공산권 선교전략」에 대해서 읽고 난 즉시 우리 가정의 금요기도회에서 북한과 중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을 월간 충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월간 충현 편집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직장에 매달리고 책읽기 힘든 제게 쉽게 읽혀지며 은혜받는 것은 월간 충현에 실린 생동력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제게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해하고 새삼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싶지만 이 넓은 大阪에 한두군데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제게 월간 충현이 필요하오니 엄치없는 부탁이지만 매월 발송해 주실 수 없으신지요. 살기에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국의 통일과 충현교회에 성령충만하시며 성전 건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며 월간 충현 편집위원님과 성도님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983년 2월 13일

오오사카에서 고 영애 드림



해외 선교지·선교사를 위한 우리의 기도

○애굽

—이 준교 선교사

애굽의 선교사역과 기타 여러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수단지역에 특강강사로 수고하시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며 애굽지역에서 공사를 하던 동산토건이 거의 철수하였으며 그동안 현장에 배를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미국 워싱턴 세계선교교회 김 바울 목사님과 다섯분과 애굽 선교현황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함.

1) 수단지도자 수양회 강사로 참석 저녁집회및 특강인도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

2) 2월1일 카이로 한인교회 2월 정기 기도회및 성경공부 모임을 인도함

3) 2월6일 : 만세이트·엘·사드르 복음주의교회 주일 저녁예배 참석 설교하시고 성찬예식 집례

4) 공사중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교우를 방문 위로함

—기도제목—

1) 애굽의 선교와 카이로 한인교회의 부흥과 발전

2) 선교사님과 가족의 건강 특히 사모님의 건강과 자녀교육을 위해

○일본

—유 병세 평신도선교사

출고 미끄럽고 눈보라치는 50km의 길을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배후기도를 하시는 충현의 성도님께 감사의 소식을 전해오심.

1) 이 윤호 권사님 광미교회 부인 성경반 인도및 병문안과 심방을 하심.

2) 유 병세 선교사님 광미교회 예배인도

3) 마키 미국 선교사와 사카가이 자매님이 내방 간담하심.

4) 수시로 외래환자에게 전도및 입원환자에게 방문 위로하고 대화를 통해 전도.

—기도제목—

1) 충현의 성도님께 배후기도를 부탁함.

2) 선교사님의 부부의 건강과 하시는 사역에 성령충만하시길.

3) 어려운 길을 다닐 때 주님이 지켜주시길.

○벨지움

—김 성완 선교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사의 어려움과 노고속에서 어린이 찬

송가와 성경공부교재, 선교 세미나 교재, 파송예배시의 사진등을 받으시고 많은 위로가 됨을 감사 드린다는 소식을 전해오심.

암스텔담교회 한광조집사님이 내방하시어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며 교재중 일부를 암스텔담교회로 보냈다 함.

1) “성도의 삶”이란 주제로 2일간 3회 “성령론”이란 주제로 1회의 세미나를 가짐.

2) 본 총회가 파송한 유럽지역 선교사 연합회 모임에 참석함.

3) 구약, 신약, 초신자반의 성경공부를 인도하시며 3월중에는 지도자반 성경공부를 인도할 예정임.

4) 운전면허 시험이 현지사정에 의해 3월8일로 연기됨.

—기도제목—

1) 선교지역및 대상을 확장하게 하시고 집회마다 은혜를 넘치게 하옵소서.

2) 선교사님및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진을 위해

3) 성경공부의 향상및 확장, 선교를 위한 훈련이 성공하도록.

4) 주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좋은 일꾼, 좋은 지도자, 좋은 천국일꾼, 좋은 성도를 양성하도록.

○파라과이 —김 재창 선교사

항상 교회의 주보와 함께 소식을 보내주시며 사모님의 방한시 후 대하여 주님과 83년 주일학교 공과 및 새찬송가 50권을 접수하시고 감사의 문안을 주셨습니다.

- 1) 어린이 여름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마칩.
- 2) 2월10일 구역 친교회를 인도 하심.
- 3) 한인 유치원을 원아 33명과 함께 시작함.

—기도제목—

- 1) 사모님과 가족의 건강 및 자녀 교육을 위해.
- 2) 교포사회의 복음화와 원주민의 선교를 위해.
- 3) 교회의 부흥과 증축을 위해.
- 4) 원주민선교의 확장 및 발전과 많은 예배를 위해.

○서독 —육 호기 선교사

여러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 하게 하시고 교회를 나날이 부흥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유럽총회 선교사 연합회에 회장으로 선임되셔서 유럽전역으로 선교무대를 삼게 하여 주심으로 더욱 바빠지셨으며 런던의 김 북경선교사와 충현의 선교사파송 협력에 대한 서신교환 하심.

- 1) 비스바덴교회 여전도회는 월례회를 갖고 사업계획을 의논하고 필리핀의 민다나오섬의 백병수 선교사에게 1년간의 지원을 마치고 타선교지를 물색중임.
- 2) 하나우교회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성경공부와 구역장을 위한 성경공부 및 구역인도 방법을 가르치고 있음.

- 3) 평신도 수양회를 3월28일~4월2일까지 성도교회 장 경두 목사님을 모시고 가질 예정임.

—기도제목—

- 1) 선교사님과 가족의 건강과 영력을 위해.
- 2) 평신도 수양회를 위해.
- 3) 4곳의 교회의 계속적인 부흥을 위해.
- 4) 새로 맡으신 선교사 협의회의 부흥 발전을 위해.

○인도 —엘리아 겔간 선교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도의 다질링과 카길에서 선교사역에 열심이시며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충현의 성도와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심

- 1) 1월19일 사모님이 아들을 순산함 이름은 안드레스 사카브단 겔간 임
- 2) 다질링(인도의 동북부, 네팔 접경)에서 “신년을 맞는 기독교인의 행복”이란 제목으로 설교하심
- 3) 영하20°C의 카길에서 기독교 사역자총회 진행담당총무로 사역중임
- 4) 크리스마스 카드 및 선물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선물은 모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크게 기뻐하심 전해함.
- 5) 금년에 카길지역에서 진료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하심.
- 6) 선교동역자와 특히 무슬림 개종자 아론 말리크에게의 도움이 필요함

—기도제목—

- 1) 사모님과 앤디(새로 출생한 아들의 출인이름)의 건강을 위하여
- 2) 카길지역의 의료사역의 시작을 위해
- 3) 인도의 선교 동역자를 위해

○칠레 —유 재일 선교사

신앙월력을 받으시고 교인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칠레 장로교 총회에 참석 그동안의 선교활동 보고와 기념품(거울)을 증정하셨습니다. 2월28일은 이상기온으로 해산물과 고기가 전멸 어부의 집단이주로 토코빠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신문을 보고 토코빠자교회를 독려하는 편지 보냄.

- 1) 2월9일~11일 오후9시 한인교회 제직 수련회를 은혜중에 마침
- 2) 2월21일~25일 아르헨티나 선교여행을 무사히 마침
- 3) 83년도 선교사의 동역자를 위해 기도로 구하고 계심

—기도제목—

- 1) 칠레 어린이주일학교 성경구임을 위해
- 2) 가족의 건강과 칠레 원주민 선교사역을 위해
- 3) 칠레 선교사역에 동역할 동역자를 위해
- 4) 칠레장로교 총회와의 선교사역을 위한 교류와 협력에 더욱 발전과 커다란 열매를 위하여

○인도네시아 —서 만수 선교사

수천의 섬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의 복음화를 위해 지금도 우

상앞에서 달리는 불쌍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열심이시며 당회장님을 통하여 큰 은혜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문안.

(1) 당회장님 일행(박 명식 사모, 한 경일 장로)이 1월25일 현지에도착하셔서 26일~28일 오전 성경강해와 부흥집회를 인도 하심

(2)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이철수, 정우웅 씨의 안수집사 임직식이 지난 1월30일 현지의 임마누엘교회에서 은혜중에 거행되었습니다.

(3) 당회장님 일행은 선교현장을 방문 민다나오섬과 4곳의 오지사역 현장을 15일에 걸쳐 방문하시고 현지 사역자를 위로 격려 하셨습니다.

(4) 오지사역 : 장년35명과 어린이 3명이 결신하였으며 2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기도제목—

- 1) 인도네시아의 선교의 길이 넓혀지기를 선교사님부부와 선교사역자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 2) 한인교회, 선교지원교회 및 개인의 안정과 부흥을 위해

○ 본부소식

(1) 본 총현 세계선교회는 각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앞으로의 선교사역을 위한 배후 기도모임을 지난 2월6일 부터 동관 3층에서 매주일 저녁 예배 후에 가지고 있습니다.

(2) 6월20일부터 7월1 일까지 미국 시카고 인도의 휘튼대학에서 열리는 휘튼 83대회에서 지역 사회와 교회라는 큰 주제 하에서 중산층 교회의 대표적인 성공적 성장 교회로 총현교회가 선정되

어 당회장님께서 주 강사로 강연을 하시게 되셨는데 강연문 원고가 완성되어 영어로 번역중에 있으며 초고 작성에는 이성근 목사, 박용삼 집사, 오치용 목사님이 수고하셨고 영어 번역에는 김양순씨(김경신 전도사 사모)께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3) 이스라엘 선교사로 수고하실 김주경전도사님이 귀국 지난 2월23일 및 26일 교회 앞에 인사를 하셨습니다. 사모님이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서 3월9일 따님을 순산하셨습니다. 또한 총신 신학연구원에 편입수속을 마치고 본교회 장학위원회에서는 장학금을 지급기로 결정하여 3월15일부터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 그루터기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이브는 예배에 단골 지각생이다. 그녀는 설교시간만 되면 줄음이 자주 오기 때문에 미안해서 부러 늦는다고 말하곤 한다. 오늘(주일)도 그녀는 설교를 하다 목사님의 설교가 거의 끝 마치실 즈음에 가방에 성경과 찬송책을 넣고서 집을 나섰다. 예배당에 들어가니 이미 헌금을 하고 있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일단 뒤 빈자리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려고 두눈은 감고 한 손으로는 가방 속에 있는 돈 중에 천원짜리를 더듬어 찾았으나 손의 감촉으로는 알 수 없어서 한쪽 눈만을 살피시 뜨고 찾아 보려는데 헌금주머니가 이브의 앞을 막 지나가고 있다. 그녀는 일단 손에 잡히는 대로 넣었다. 예배가 끝난 후에 그녀는 가방 속에 있던 돈들을 꺼내어 세어보니 헌금한 돈은 천원짜리가 아니라 만원짜리이었다.

그 때에 옆에 있던 권사님께

이브 : 『아이고 권사님! 저는 오늘 큰 실수를 했어요』

권사님 : 『무슨 실수를 했는데 그러우』

이브 : 『글쎄 헌금시간에 헌금 할 돈을 찾다가 급해서 천원짜리 넣는다는 것이 그만 만원짜리를 넣었지 뭐예요. 아이 속상해』

권사님 : 『천원짜리 할려고 했었오?』

이브 : 『예』

권사님 : 『염려마우 사람은 본래 실수가 많은 법이라우.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고 정확하고 틀림이 없으신 분이니까 당신이 천원을 헌금하려고 했다면 당신이 만원이나 천만원을 헌금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 헌금장부에 만원이 아니라 천원이라고 틀림없이 적어 넣으실 터이니 염려마우』



장학위원회

과거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던 장학위원회가 3월4일 당회결정에 의해 당회로 소속되면서 새로 장학회로 구성되었다. 장학위원의 명단과 이번 학기 장학생들은 다음과 같다.

장학위원

위원장: 이응선

서 기: 이태규

회 계: 윤명식

위 원: 김원남 장정일 김창근
최봉호 김기정 조현명
윤종성 최석주 윤종순
김차생 오진국

장학금 해당자

전액해당자: 김양래 김성운 김
오용 김주경 윤용
규 이상환 오태용
유희섭 이성은 하
영자 (10명)

반액해당자: 장병기 송균호 남
창우 임길수 강동
호 (5명)

교사 체육대회

주교교사들을 격려하고 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어 주기위해서 4월5일 오전8:30부터 오후5시까지 한영 중·고등학교 (사군동 소재)에서 교역자와 장로 및 주일학교 교사들이 교육위원회 주관 하에서 체육대회를 갖는다.

행사 내용은 가장행렬·축구·터치볼·자루업고 뛰기·옛 찾아먹기·공굴리기·릴레이와 풍선터뜨리기 등의 각종 경기를 한다.

□인사이드 교육 위원회

① 임명

유년부—이상금 (정교사)

중등부—장춘균 (정교사)

허만선 (임시교사)

장새부—최인식 (임시교사)

세례부—이원화 (정교사)

직청부—박정태 (정교사)

김귀자 (임시교사)

김명순 (임시교사)

② 퇴임

유치부—김인애

〈시편 118편〉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찌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지는 것을 내게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여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검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췌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와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시편118편 중에서)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월간 총현은 여러분의 대화의 광장입니다. 교회와 가정 그리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평소 간직하고 있던 나만의 이야기들을 적어보내 주십시오.

시, 수필, 간증, 꿈, 제언, 논단 그리고 미담가화 등 어떠한 내용의 글이라도 신앙적인 것이라면 다 좋습니다.

원고마감: 매달 15일까지

길 이: 200자 원고지 15매정도

(시는 제한없음)

보낼 곳: 월간 총현 편집실

월간 총 현



이달의 교우동정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 24, 25)

- 이규석군과김영혜양(김석규씨 집영군 권찰 딸) 3월 5일
- 오성만군(창동구역)과 임필숙양(창동 구역 새래부) 3월 11일
- 오세익군(방배구역)과 양영혜양 3월 19일
- 김옥경양(김명호씨 김경숙권사 딸) 3월 19일

별 세

2월의 새교우

●1지구

암사구역 신성우
길동구역 권오영
둔촌1-3구역 이종관
자암1-1구역 강신도
제기1구역 임문삼
용담구역 노동조
용담구역 남방현
중곡2-2구역 이강복
중곡2-2구역 박이욱
취경구역 이상열
중곡3구역 김현탁
목수1구역 천홍식
수택구역 박호길
구의1구역 한철용
시청구역 노승성
화암1구역 박노신
송정구역 윤미영
하왕2구역 조종덕

쌍문2구역 원준용
방학1구역 박성열
인암35구역 김동술

●3지구

갈현1구역 김인수
종로4-6구역 김혜숙
중산구역 홍현숙
을지5-2구역 박미경
용암1구역 김정임
을지6-1구역 진학래
강촌2구역 김청수
을지3구역 안범
갈현1구역 이태성
용암1구역 이영연
홍은2구역 강진희
갈현2구역 김남식
홍은1-3구역 우성용
평창구역 전유덕

●4지구

인현2-2구역 최윤식
신월1구역 김재훈
신월구역 김인성
광명구역 정계룡
목정8구역 심성보
영곡구역 신종남
대림구역 장영태
세곡구역 이정호
충무4-2구역 이교열
충무5-1구역 이상길
목정2구역 정광택
논현4구역 최성조

●2지구

방학2구역 최수희
쌍문4구역 정성훈
상북1-2구역 박우근
광희1-3구역 박현광
은마1구역 김성호
청담1구역 이병영
동소문1-2구역 박미숙
수유5구역 이병익
쌍문1-3구역 김성욱
장위3구역 백윤계
하월곡구역 이영규

개나리2구역 황성하
도곡1구역 김운근
연남구역 민병량
화곡5구역 이인술
당산구역 유연종
도화1구역 이경연

●5지구

신대방2구역 이의영
삼도3구역 천계순
봉천3구역 박진주

신림7구역 김태식
구로1구역 이희영
봉천3구역 양태현
한신10,13구역 김진영
상도3구역 조영선
신림3,4구역 김명열
필동3,8구역 이승오
용산1-3구역 안대응
반포우성구역 청순옥
안양구역 황경식

- 한명숙씨(성림5구역) 2월 9일
- 김영민군(김규태, 송정자집사 2남) 2월 10일
- 정삼영권사(김용보집사 부인, 김인식 집사 모친) 2월 16일
- 김위웅장로(김은태집사 부친) 2월 16일
- 오원석씨(주교1구역) 2월 22일
- 이규봉집사(시영구역) 3월 2일

결 혼

- 정은선양(정재복집사 서양순권사 딸) 2월 21일
- 김연애양(김철준장로 백현옥권사 딸) 2월 22일
- 임명기군(임현덕장로 김순철집사 아들)과 최영선양(최석주장로 석혜자 집사 딸) 2월 28일
- 정영도군(고척구역)과 신금림양(성일 구역 실재복씨 최옥규씨 딸) 2월 28일
- 양복동군(양남구역 박갑래집사 아들)과 유은옥양(중곡구역) 3월 1일
- 고제민군(교배전집사 저순문권사 아들)과 심희영양 3월 1일
- 김용기군(윤경전집사 아들) 3월 4일
- 지훈군(청년부회원)과 이경자양 3월 3일

새로 나온 교우는

*...새로 나온 교우는 모두 장년새신자부에서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년새신자부는 1,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장년새신자 1부에서 6개월 교육을 받으면 수료와 함께 「학습」을 받게 됩니다. 「학습」을 받은 사람은 장년 새신자 2부에 가서서 6개월 교육을 받으면 수료와 함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년새신자부에서는 기본적인 기독교의 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하여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 장년새신자부의 시간은 각 12시로, 1부는 새신자부실에서, 2부는 청년부실에서 모입니다.

3월의 행사

◇교회

4일/정기당회

11일/전체철야기도회

◇전도위원회

11일/여전도회 월례회

13일/남전도회 월례회

직장전도회 임원회

14일/직장전도회 석찬기도회

27일/전도위원회 월례회

◇교육위원회

10일~12일/직장부 계절학교

15, 16일/영아부 계절학교

27일/교육위원회 월례회

◇심방위원회

6일/정기 제직회

13일/권사회 임원회

20일/심방위원회 월례회

27일/구역권찰회의

◇재정위원회

6일/재정위원회 월례회

◇건축위원회

27일/건축위원회 월례회

◇자산관리위원회

20일/자산관리위원회 월례회

◇출판국

20일/출판국 월례회

27일/월간 충현 3월호 발행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 월간충현 편집위원 □

위원장/윤명식

편집위원/

이성근 이세열

윤영탁 안석렬

김영구 조현명

김차생 우기전

이훈정은표

오태용이형수

1983년 3월호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83.3월호

제11권 제3호

통권 제108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83년 3월 21일 인쇄

1983년 3월 26일 발행

발행인/김창인

편집인/윤명식

주간/김영구

편집부장/문영화

발행처/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 00-000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5가36

전화 / 274-2171-2172

편집후기

하루 하루의 생활, 한 걸음 한 걸음씩 신천신지를 밟듯이 영의 깊은 세계를 걷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은 월간 충현을 자세히 읽어야 하고 이미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사는 성도들은 첫 글월부터 마지막 편집후기 까지 자세히 읽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함은 무리일까?

이 글월 속에서 우리는 목사님을 만나 뵈을 수 있고 그 분을 통하여 사랑이 담뿍 담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과 함께 간절한 권고와 교훈을 대할 수 있다. 속담에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먹일 수는 없다는 말이 있다. 월간 충현이 피땀이 어린 성도들의 헌금과 여러 사람들의 수고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읽는 성도들이 없으면 소용이 없게 된다. 이 충현지에서 성도들은 목사님들을 만나 뵈을 수 있고 성도간의 교제도 할 수 있으며 특히 많은 기도의 제복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말씀의 생활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그래서 월간 충현은 많은 성도들의 기다려 지는 벗이기도 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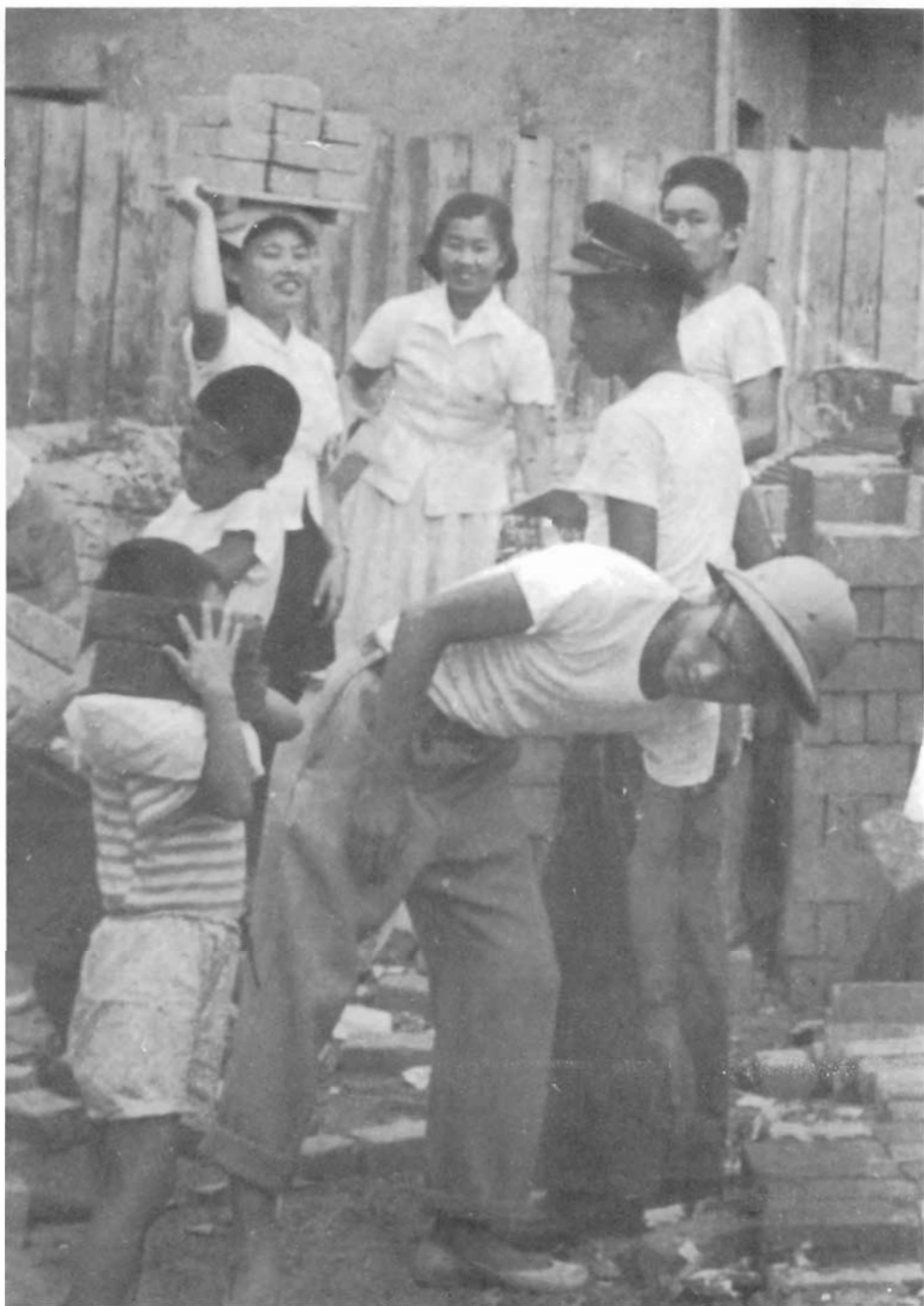
① 영아부 계절학교 (3. 15~16)



② 직장청소년부 계절학교 (3. 10~12)



③ 부흥회집회 (2. 28~3. 4)



사진설명 1955. 8 성전건축에 총동원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례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 132 : 7~9)